

제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1

최근의 '게시판 해프닝' 을 계기로 사제간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평소부터 우리 학부 익명게시판에 올라온 학생들의 글을 보고 무언가 얘기를 해주고 싶던 터였습니다.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무관심하다는 불만이 꽤 많이 올라오는 것을 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학생들이 교수와 친해지는 것을 원하는 만큼, 교수도 학생과 친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회가 없어 그 희망을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 글에서는 사제간의 관계에 대한 평소의 내 생각을 두서없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내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는 경제학과 정원이 55명이었습니다. 이 적은 수의 사람이 4년 동안 함께 학교를 다니면 서로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수님들도 우리들 하나하나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주 잘 알고 계셨습니다. 물론 당시의 교수님들은 우리들 모두에게 아낌없는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요.

그런데 이제는 경제학부 정원이 거의 세 배나 되는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 경제학부 학생들이 서로를 잘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이런 현상은 광역화가 실시된 이후에 더욱 심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정원이 커지다 보니 교수와 학생 사이의 관계도 자연히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교수님들은 우리 이름을 모두 알고 계셨는데, 교수인 내가 알고 있는 경제학부생의 이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크게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름은 고사하고 얼굴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경제학부생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 캠퍼스를 건다가 인사를 하니깐 받기는 하지만 속으로 “저 친구가 누구지?”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제자도 아닌 사람에게 반말로 “누구지?”하고 물었다가 망신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나는 주로 대형 강의를 맡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 얼굴 익히기가 더욱 힘듭니다. 수업 시간에 늘 앞줄에 앉은 학생이라면 그래도 학기가 끝날 때쯤 해서 얼굴이 익어집니다. 그러나 강의실 뒤쪽이 어두운 구석에 앉았다 가는 학생은 얼굴 익히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내 연구실로 자주 찾아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미안한 일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학생들 얼굴 정도는 알아 놓아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출석부를 때 얼굴을 유심히 보아 놓으려고 노력하지만 이미지가 곧 뒤섞여 버리고 맙니다. 이 점과 관련해 그 동안 나에게 섭섭함을 느꼈던 학생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우리 학부의 현실을 감안해 나를 너무 무성의한 사람이라고 욕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나를 잘 아는 학생들은 흔쾌히 인정하겠지만, 나는 학생들과 친해지고 대화하는 것을 상당히 즐기는 편입니다. 그러니 학생들과 친해지고 싶다는 희망도 무척 강하다고 할 수 있지요. 지금까지 나와 대화하고 싶어 연구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온 사람을 박절하게 돌려보낸 적은 없습니다. 물론 학점 같은 공식적인 사안과 관련해서는 얼굴까지 붉힌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요.

학생들과 친해지고 싶다는 희망은 나 하나만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 학부 교수들 모두의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친해지고 싶은 교수가 있다면 용기를 내서 그 분의 연구실 문을 두드리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답지 않게 수줍은 사람들이 꽤 있는데, 교수 찾아가는 것이 뭐가 그리도 ‘쭉 팔리는’ 일입니까? 그런 용기조차 없으면 이 거친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남으려구요?

다만 한 가지 조심할 점은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우리 학부 교수들 중에는 무척 바쁜 일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젊은 교수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그 분이 조금 한가한 시간을 골라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느끼는 와중에 학생이 찾아오면 친절하게 대해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노력만 하면 한가한 시간이 어느 때인지를 알아내는 방법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내 딸 애가 유학중에 있는데, 언젠가 지도교수를 찾아갔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대뜸 “몇 분이나 필요한가?”라고 묻더랍니다. 그래서 “바쁘시면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라고 말했더니, “몇 분인지 말이나 해.”라고 욱박지르듯 묻더랍니다. 우리 경제학부 교수들 중에는 이런 정도로 사무적으로 대하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교수들에 비하면 아직도 우리 교수들은 천사와도 같은 사람들이지요.

내가 늘 강조하는 바지만, 교수와 친하게 지낸다고 해서 손해를 볼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물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익으로 따져서는 안 되겠지만, 실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두고두고 교수들의 신세를 지게 될 겁니다. 추천서 써 주고, 주례 서 주고, 진로상담도 해 주는 등 교수들이 제공하는 애프터서비스는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교수들에게 섭섭함을 느끼게 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는 바람에 교수에게 꾸중을 들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수와 제자 사이의 관계는 사회에서의 일반적인 인간관계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설사 교수가 꾸짖는다 해도 여러분에 대한 애정이 그 밑에 깔려 있는 꾸지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절감하겠지만, 거기에는 애정이 깔려 있는 꾸지람이 매우 드뭅니다.

나 역시 학생들로서는 별로 달갑게 느껴지지 않을 언행을 할 때가 많습니다. 교실에 모자 쓰고 들어오면 벗기고, 휴대폰 벨 소리 나면 화를 내고, 강의실을 들락날락하면 짜증을 냅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그런 행동을 규제하는 주요한 목적은 강의 분위기를 진지하게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정숙한 분위기에서 공부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니깐요.

그러나 본심을 얘기해 보자면, 그런 규제를 통해 여러분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보고자 하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우선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은 자신의 사소한 부주의가 남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남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내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규율 있게 사는 방식을 몸에 익혀두는 것이 학생 본인에게 좋다는 점입니다. 놀 때는 얼마든 자유분방하게 행동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공적인 자리에서는 규율 있게 행동해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단 75분의 수업시간 동안 참지 못해 흐트러진 자세를 보이는 사람은 사회에 나가 성공하기 힘듭니다. 내가 늘 말하지만, 진정한 ‘신사와 숙녀’가 되려면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 동안 나에게 꾸지람을 받은 사람이 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의 교수 생활에

서 심하게 학생을 나무란 적도 몇 번 있습니다. 내가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 중 나를 끝내 미워하는 사람이 얼마간 있다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해 나는 학생을 꾸짖는 순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이 어떤 이유로 꾸지람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미워하는 것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얼마 전 우리 학부 97학번 졸업생들 20여 명과 함께 모여 저녁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즐거운 자리였습니다.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열심히 활약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정말로 뿌듯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한 친구가 나에게 고백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모자를 몇 번 쓰고 들어갔다가 나에게 혼난 적이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친구는 나한테 글을 엉망으로 썼다고 면박을 받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일들은 나로서 전혀 기억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 얘기들을 하면서 배가 터지도록 웃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사제간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아무 일도 없었던 경우보다 더 재미있고 더 가깝게 느껴지는 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중 혹시 나 또는 다른 교수에게 어떤 앙금 같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 훌훌 털어버리기를 권합니다. 앙금을 마음속에 품고 산다는 것 그 자체가 본인을 괴롭게 만드니까요.

캠퍼스를 걷다 보면 분명히 얼굴을 기억하는 학생인데 외면을 하고 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무슨 사연인가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 중에는 나한테 C학점을 받았다는 사소한 이유도 있는 것 같더군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렇게 쪼쪼하게 살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학점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교수가 부당하게 자신을 차별해 그런 학점을 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면서 그러는 건 정말로 졸장부 같은 행동이지요.

나한테 F학점을 두 개나 받고도 나와 무척 친하게 지내는 졸업생도 있습니다. 그 친구는 재수강을 포함해 내 강의를 다섯 번 들었는데, 지금까지의 내 제자 중 최다수강의 기록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 친구는 시원시원한 성격일 뿐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도 정말로 훌륭한 모범적인 청년이랍니다. 그래서 나는 그 친구를 ‘사나이 중의 사나이’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사람을 닮아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횡설수설을 하는 김에, 또 다른 얘기도 한 번 해보지요. 강의를 하는 도중 내가 가끔 농담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학생들을 돌아보면 모두들 배를 잡고 웃는데, 일부 학생들은 웃지도 않고 쩡그린 표정으로 나를 노려보듯 하고 있더군요. 마치 내 말과 행동 하나 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한 얼굴로 말이지요. 그런 학생을 보면 약간 섬뜩한 느낌을 받습니다. 아마 그 학생은 나를 싫어하고 있거나, 아니면 자신의 인생을 싫어하고 있을 겁니다.

내가 그런 학생들 만날 기회가 있으면 해주고 싶은 말은,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웃을 때 함께 웃는 여유조차 없는 인생이란 것이 얼마나 각박한 것입니까? 여러분들 표현대로, 인생을 그렇게 ‘까칠하게’ 살면 거기서 어떤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싫더라도 내 얘기가 웃긴다고 생각하면 웃어줄 수 있는 정도의 여유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가에서는 지나가다 옷깃을 한 번 스치기만 해도 인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경제학부 학생으로서, 혹은 내 강의의 수강생으로서 나와 맺은 인연은 엄청나게 돈독한 것입니다. 나는 모든 학생과의 인연이 아름답기 그지없는 인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교수라는 직업이 갖는 가장 큰 매력이 수많은 제자들과 이런 아름다운 인연을 맺을 수 있다는 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슬프게도 모든 인연이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더군요. 단지 내 강의를 들었다는 것만으로 내 제자가 되지는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강의에 출석만 했지 나와는 전혀 인간적 교감을 하지 않은 채 한 학기를 마친 사람도 꽤 있더군요. 그렇게 된 데는 내 덕이 모자란 탓이 클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전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러나 이런 사례를 볼 때 서글퍼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나는 내 제자가 되고자 하는 모든 학생들을 따뜻하게 맞아들일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나와 대화를 원하면 아무 때나 연구실 문을 두드리세요. 공부, 진로, 연애 등 갖가지 일로 상담을 해줄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해주는 사람으로서 내가 갖는 비교우위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충고를 해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공자님, 맹자님 말씀처럼 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현실성이 없는 충고는 해주지 않는 편입니다.

또한 나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처럼 사랑으로 눈이 먼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좀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느끼겠지만 부모님은 자식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큰 나머지 매우 비현실적인 기대를 거는 경향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할 때 이 점이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 제3자로서의 내 충고가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해결사'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양가 있는 충고를 해주기도 힘듭니다. 예를 들어 기업에 들어가면 어떤 생활을 하게 되느냐고 묻는다면 기업에 다녀본 경험이 없는 나로서는 해줄 말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내가 잘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무언가 얘기해줄 수 있을 뿐입니다. 또한 내 말이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큰 기대는 걸지 말고 찾아오세요.

요즈음의 세태는 교수와 학생들 사이의 관계가 단지 지식의 전달로서 끝나는 것으로 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교수를 마치 지식 상인처럼 취급하는 일도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런 변화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까지 그것을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교수와 학생들이 인간적으로 교류하고 서로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분위기를 그대로 유지해 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